

“올해 착수도 못한 사업 22건 사업포기”

허남주 도의원, “심각한 행정·재정력 낭비요 직무유기... 폐습이 매년 반복되는 것 이것이 적폐”

허남주 도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도의회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북도가 매년 결산 추경을 통해 사업포기를 하며 착수도 못한 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 행정력과 재정력 낭비는 물론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한 사업이 모두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32개 사업 32억1,989만1,000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바 있어, 해마다 그만큼의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등 예산운용의 부실함을 넘어 직무유기행정으로 근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북도가 열악한 재정과 복지예산의 매칭 증대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획관리실 예산과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 원, 곤충·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 등을 포함하여 22개 사



업 80억1,695만원'의 사업이 착수도 못하고 예산을 방치했다가, 결국 정리추경에서 감액 삭감 처리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직무구구식 사업편성에 대해 “이것은 심각한 재정낭비요 행정낭비이며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하며, “도민의 혈세를 방치하고 전북도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폐습이 매년 반복되는 것 이것이 적폐”라며 “반드시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주 의원은 실제로 도에서 제출한 전라북도 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기획실 예산과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4억 원, 곤충·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3억 원, 지치행정국 회계과 노후CCTV 카메라 수리 및 교체 3,000만 원, 농축수산물품목 농촌활력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5,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전주,군산,고창,부안) 4억6,000만 원, 등 22개 사업을 시간만 끌다 착수도 해보지 못하고 도 스스로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저출산 극복 범국민문화축제 개최

우리나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2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저출산 문제, 문화로 극복하다’ 주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민주당)과 공동주최로 ‘제2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문화축제’ 행사를 국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사)한국가정사역협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본부, 공동주최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특강), 2부 리마인드 웨딩(다자녀 가정 상 수상부부 4쌍), 3부 다자녀 가정·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시상식 및 축하공연, 4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언문 채택 및 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됐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사랑으로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다자녀 가정에 수여하는 2017 다자녀 가정 상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상으로 시상됐다.

2017 모범 다자녀 가정 대상에 김중식·노정화 부부(12남매), 모범 다자녀 가정상에 김학수·김금려 부부(11남매), 모범 다문화 다자녀 가정상에 김영덕·하시모토 치에코 부부(7남매), 모범 다자녀 가정상(일·가정 양립)에 이영주 춘천지방경찰청장(4남매) 등이 수상했다.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상을 세종특별자치시(이준희 시장)가 2017 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대상,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 전라남도 순창군(황수주 군수), 서울특별시 성북구(김영배 구청장)가 받았다.

유성엽 위원장은 “본 행사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약수하는 한-우즈베크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한 사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환경복지위, 내년도 예산 꼼꼼하게 심사한다

〈전북도의회〉
전년대비 9.38% 증가한 2487억8726만원 규모 환경복지국 예산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도 환경복지국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이날 환경복지국이 올해보다 213억3,235만원(전년대비 9.38%) 증가한 2,487억8,726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위원회는 간담회를 갖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과감한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최훈열 위원장은 ‘환경복지국’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때 마다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것을 주문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다”며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윤 부위원장(전주4,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의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돼 있는지, 투자와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은 충분하지 꼼꼼하게 따질

것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도 살펴야겠다”고 말했다.

최명철 부위원장(전주4, 국민의당)도 “송하진 지사의 공약과 국책사업, 현안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복지위원회가 불필요하게 포함된 사족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이국종교수 비난 김종대 의원 사퇴하라”

의료계가 JSA 귀순 북한 병사의 상태를 공개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에게 ‘인권 테러’라고 비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한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병의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7,000명 병원 의사들은 JSA 북한 귀순용사 목숨을 구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헌신적인 자세에 동료 의료인들로서 감동과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교수와 의료진에게 힘을 달라”고 이 교수 지지를 선언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치료 중 환자의 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 모두가 혐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지만, 환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불편한 시각을 정치적인 진영논리와 결합해 지속적으로 의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며 “의료진에게 응원이나 격려를 못할망정 환자 인권을 테러했다고 주장했다”고 맹비난했다.

병의협은 “전국에 산재한 권역별 응급의상센터로는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은 점점 소진돼 가고 후학의 양성은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태”라며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읍소했다. /뉴스시스

도의회 문건위, 조례안·2018년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정위원회는 2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1차 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전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또한, 2018년도 사업별 예산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과다계상여부, 유사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제99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눈길을 끌었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현위치 신축”

41년 전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현 위치에서 내년에 새로 지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 의원은 합영농어촌공사 익산지사를 새로 짓는 내용의 사옥 신·개축 중장기 계획이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지사는 1971년 지어진 이후 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건물 노후화 문제를 비롯해 군산이전 이 검토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익산지사 신축의 배경에는 이 의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을 만나 익산지사의 군산이전 중단을 확약 받는데, 이어 올해에는 익산지사 신축결정까지 이끌어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법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등 공사와 꾸준히 접촉하며 익산의 중요성을 역설한 끝에 타 지역보다 우선순위로 신·개축할 것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군산으로 이전될 위기까지 처했던 익산지사를 오히려 신축으로 돌려놨다”며 “건물 신축을 계기로 농어촌공사가 지역 농업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

CAK 대한건설협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창조적인 건설산업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6대 회장단 및 제5대 대표회원 ”

회장 정대영	윤리위원	곽병도	윤영위원	강신길	윤영위원	신상문	대표회원	강동범	대표회원	김영욱	대표회원	안석문	대표회원	권강준
직권회장 윤재호	윤리위원	김승희	윤영위원	고상범	윤영위원	양신기	대표회원	강성희	대표회원	김영우	대표회원	안장환	대표회원	정준모
부회장 윤병섭	윤리위원	김승수	윤영위원	기호성	윤영위원	오영준	대표회원	강지현	대표회원	김용태	대표회원	유득한	대표회원	정영주
부회장 소재철	윤리위원	박영식	윤영위원	김성민	윤영위원	윤선학	대표회원	강지형	대표회원	김재호	대표회원	유영숙	대표회원	정영신
부회장 권옥	윤리위원	송재철	윤영위원	김영량	윤영위원	이재선	대표회원	고두영	대표회원	김창신	대표회원	윤진오	대표회원	조희곤
감사 이운범	윤리위원	송화중	윤영위원	김영량	윤영위원	이재선	대표회원	김광현	대표회원	김창욱	대표회원	이준	대표회원	진영철
원로회원 임영환	윤리위원	이승희	윤영위원	김종원	윤영위원	이정휘	대표회원	김대수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이기철	대표회원	진영신
원로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이동근	윤영위원	나춘근	윤영위원	이정휘	대표회원	김만열	대표회원	김철상	대표회원	이용만	대표회원	최경호
원로회원 이동규	윤리위원	이승기	윤영위원	문길천	윤영위원	조근수	대표회원	김민석	대표회원	김영주	대표회원	이우재	대표회원	최용호
원로회원 김성권	윤리위원	이승기	윤영위원	박종완	윤영위원	채이석	대표회원	김민석	대표회원	박찬민	대표회원	이장준	대표회원	한웅진
	윤리위원	조병두	윤영위원	배문식	윤영위원	최도성	대표회원	김성광	대표회원	박남경	대표회원	이홍우	대표회원	한지훈
	윤리위원	최현호	윤영위원	배진석	윤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양욱	대표회원	송영석	대표회원	임재준	대표회원	황태봉
	윤리위원		윤영위원		윤영위원		대표회원	김양희	대표회원	안대순	대표회원	장기현	대표회원	황호영

이준성명가나다순

CAK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